

# 사설시조와 리얼리즘\*

고정희\*\*

1. 문제제기
2. 루카치 이론 적용의 문제점
3. 사설시조의 리얼리즘적 성취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사설시조가 보여준 리얼리즘적 성취를 통해 문학이 사회 현실을 어떻게 환기하고 재구성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2장에서는 루카치의 리얼리즘 이론이 사설시조 연구에 어떻게 잘못 적용되었는지를 살피고, 3장에서는 루카치 이론으로 해명되기 어려운 사설시조의 리얼리즘적 성취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에서 재현(representation)이 미학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사설시조가 특정 계층의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석하였다. 그 결과 리얼리즘이 사설시조의 시적 성취를 재단한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둘째, 사설시조 작품을 분석한 결과 사설시조가 특정 계층의 사회 현실이나 삶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있는 그대로 모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설시조는 현실을 미학적으로 재현하는 동시에 그렇게 재현된 세계

\* 이 글은 국문학회 2013년 하계학술발표대회(7.18~7.19)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좌장 심경호 선생님, 토론자 정인숙 선생님을 비롯하여 질의와 조언을 해주셨던 여러 회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가 인간의 주관성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외부 사물을 도입하여 사회 현실을 재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주관성을 제어하고 스스로를 향하여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하게끔 하는 수준의 리얼리즘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셋째, 루카치를 비롯한 서구의 리얼리즘 이론가들은 인간중심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설시조의 리얼리즘적 성취를 온전히 해명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과 문학이 서로 다른 범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학에 의해 재구성되는 현실에는 인간이 거주하는 시공간과 사물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호와 지시대상 사이에서 작용하는 언어의 발랄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리얼리즘 이론이 필요하다.

핵심어: 사설시조, 리얼리즘, 문학, 사회 현실, 루카치, 미학적 재현, 주관성의 제어, 리얼리즘적 성취, 사물들

## 1. 문제제기

이 글은 사설시조가 보여준 리얼리즘적 성취를 통해 문학이 사회 현실을 어떻게 환기하고 재구성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통렬한 반성<sup>1)</sup>이 제출된 현시점에서, 내재적 발전론의 핵심 논거였던 ‘리얼리즘’<sup>2)</sup>을 재론하는 이유를 밝혀야 할 듯하다. 이 글이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설시조를 ‘리얼리즘’으로 재단할 수 없다.”<sup>3)</sup>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 
- 1) 김홍규,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식민지 근대성론과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이중비판』, 창비, 2013.
  - 2) 임형택, 『실학사상과 현실주의 문학』, 『제4회 동양학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0에서 “우리 문학사의 자기 발전의 과정에서 현실주의는 성장해 온 것”으로 파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리얼리즘 문학은 내재적 발전론의 중요한 증거로 간주되어 왔다.
  - 3) 김홍규, 『누추한 삶과 욕망의 온도: 사설시조의 세계』,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2010.8.28.~2010.9.25.)에서는 “사설시조의 성취는 문학사적 의의나 리얼리즘으로 재단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였으며, 김학성, 『18·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한국시가연구』 제11집, 한국시가학회, 2002에서도 “18·19세기 예술사를 바라보는 종래의 계급주의적

하고, 사설시조가 보여준 ‘누추한 인간들에 대한 관심’, ‘물질적 세계에 대한 관심’ 등을 수렴할 만한 개념으로 ‘리얼리즘’을 대신할 수 있는 개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4)</sup>

둘째, 이러한 비판은 리얼리즘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루카치의 이론을 단순 적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한문학 연구에서 ‘리얼리즘’이 여전히 유의미하고<sup>5)</sup> 유효한<sup>6)</sup> 개념인 데서 엿볼 수 있듯이, ‘리얼리즘’의 설명력은 그 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셋째, ‘리얼리즘’의 대안으로 나온 담론들도 문학이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설시조에 나오는 ‘불안한 사랑 모티브’를 ‘도시화’와 그에 따른 ‘기생과 풍류·유희 공간의 확대’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은,<sup>7)</sup> 그 해석의 깊이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문학적 형상화에 앞서 존재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전제를 리얼리즘과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은 먼저 루카치의 이론이 사설시조 연구에 단순 적용됨으로써 낳게 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나아가 루카치 리얼리즘으로 해명하기 어려운 사설시조의 리얼리즘적 성취에는 어떤

시각이나 리얼리즘론은 편향되고 경직되었다.”라고 진단하였다.

- 4) 리얼리즘에 대한 정의는 논자에 따라 지극히 다양하여 함의를 도출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여러 리얼리즘 문학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특징들을 추출한다면 ‘물질적 세계와 현실에 대한 지대한 관심’, ‘재현의 대상이 낮고 비속한 서민들이라는 것’, ‘그 언어적 기법이 환유적이라는 것’, ‘비문학적 영향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자세한 논의는 좋고, 『사설시조의 우회적 내면 표현』, 『한국 고전시가의 서정시적 탐구』, 월인, 2009, 105면 참조.
- 5) 김명호, 『실학과 문학과 근대 리얼리즘-연암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박희병, 『박지원 사상에 있어서 言語와 冥心』,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에서는 연암 박지원이 보여준 탁월한 문학적 성취를 ‘리얼리즘’ 또는 ‘사실주의’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 6) 김동준, 『조선후기 ‘朝鮮風’ 漢詩에 대한 재론』, 『국문학연구』 제10호, 국문학회, 2003에서는 ‘조선풍’이 ‘민족의 재발견’이라기보다는 ‘삶의 재발견’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조선풍’은 현실의 단순한 事象과 일상의 세부가 갖는 의미를 재발견하려는 함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의심되는 가운데에서도 ‘조선풍’에 담긴 리얼리즘적 측면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 7) 김홍규, 『조선 후기 시조의 불안한 사랑과 근대의 연애』, 앞의 책.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학이 사회 현실과 맺는 다면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루카치 이론 적용의 문제점

‘realism’은 라틴어의 ‘res(事物)’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어원적으로 볼 때 리얼리즘이란 말은 ‘외부세계의 명백한 진실’을 중시하는 태도와 관련된 말이다.<sup>8)</sup> 일반적으로 ‘외부세계’란 동시대의 사회적 리얼리티를 가리키고, ‘명백한 진실’이란 그 사회적 리얼리티를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리얼리즘은 동시대의 사회적 리얼리티의 객관적인 재현이다.”라는 정의가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르네 웰렉이 명쾌하게 비판하였듯이 다시 무엇이 ‘객관적이고’ 무엇이 ‘리얼리티’인 가라는 의문을 남긴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sup>9)</sup>

철학과 미학 쪽의 논의를 돌아보면, ‘리얼리티’가 그것을 판단하는 인간의 주관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 입장과, 그러한 것들도 결코 인간의 감정 및 태도들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오랫동안 팽팽하게 맞서 왔다.<sup>10)</sup> 이러한 상황에서 리얼리즘을 ‘리얼리티의 재현’이라는 식으로 순환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논쟁은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미학사에서는 이러한 딜레마를 ‘미메시스’ 개념의 쇄신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즉 ‘사실 세계의 시적 변형’에 의해서, 다시 말해 현상적인 다양함을 주관적인 내면이라는 필터에 인식론적으로 거르고 세련되게 만드는 미메시스에 의해서 객관적 실재와 주관의 인식이 서로 화해를 이룰 수 있다

8) 데미안 그랜트, 김종운 역, 『리얼리즘』, 서울대출판부, 1987, 55면.

9) René Wellek, “The Concept of Realism in Literary Scholarship”,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ersity, 1963, 241~246면. 르네 웰렉은 이러한 정의가 만족스럽지 못한 또 다른 이유를 들었다. 이 정의는 그 시대의 추하고 혐오스럽고 낮은 것이 예술의 합법적인 주제가 된 것을 설명하긴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예술의 교훈주의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루카치의 ‘전형’ 개념은 예술의 교훈주의를 설명해 주는 진일보한 이론으로 평가하고 있다.

10) Edward Craig ed., *Concise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744~745면.

는 것이다.<sup>11)</sup>

루카치의 리얼리즘 이론도 이와 같이 미학적인 방식으로 주체와 객체의 화해를 주장한 이론이다. 테만은 루카치가 미메시스의 전통적 개념을 끌어 들이는 동시에 미메시스 개념 안에서 模寫論의 추론들을 배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2)</sup> 파스테르나크도 루카치에게 있어서 模寫論의 지시관계는 구성이론적 지시개념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루카치에 있어서 작품 세계란 ‘先在하는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 언어로써 구성되는 세계라는 점을 말해준다.<sup>13)</sup>

국내에서는 손영주가 루카치의 ‘재현(representation)’ 개념을 재론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였다. 손영주는 루카치 미학에 있어서 ‘재현’ 개념은 ‘재현해야 할 대상’이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문학적으로 짜여지고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총체성도 작품 이전에 존재하는 모방대상이라기보다는 재현에 의한 성취물로 평가되는 어떤 것으로 이해된다. 문학으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고 단지 최대한 접근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외연적 총체성(extensive totality)이, 이러한 현실의 총체성을 단지 올바른 비례로 반영할 수 있을 뿐인 예술작품의 내포적 총체성(intensive totality)과 상징적으로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 언제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서사는 또 나름대로 현실이 따라갈 수 없는 구조를 갖기에 ‘서사를 통해 새롭게 짜여지는 현실’이 루카치가 말하는 총체성의 궁극적인 내용이 된다.<sup>14)</sup>

루카치는 이렇게 언어로 구성된 현실이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루카치는 작가가 언어를 통해 미학적 현실을 만들어 내지만 작품 세계에 대한 의미투여 혹은 의미부여는 결국 수용자의 우연적 지식 및 일반적 경험들에 의거하고 있다고 본다.<sup>15)</sup> 이후의 이론들을

11) Alex Preminger and T.V.F. Brogan eds.,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1016면.

12) Th. 테만, 『루카치 후기저술에서 미메시스의 다원론적 존재론』, 『문예미학』 제4호, 문예미학회, 1998.

13) G. 파스테르나크, 『미메시스 개념과 미적 원리들』, 『문예미학』 제4호, 문예미학회, 1998.

14) 손영주, 『문학에서의 재현(representation)에 관하여-게오르그 루카치, 롤랑 바르트, 자크 데리다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7, 21~29면.

보면 리얼리즘에서 중요한 것은 ‘재현에 앞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적 지시대상’이 아니라 ‘수용자가 어떤 것을 사실적으로 지각하는 행위’라고 보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

바르트는 리얼리즘의 관건은 수용자의 ‘사실주의적 읽기’에 있다고 보았으며,<sup>16)</sup> 굿맨 또한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재현의 충실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익숙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 시대의 표준적인 재현 체계에 의존하는 것이 수용자에게 사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sup>17)</sup> 많은 이론가들이 리얼리즘이란 ‘텍스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지각’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이론의 전개를 돌아볼 때, ‘작가가 언어를 통해 미학적 현실을 창출하고, 독자는 그렇게 창출된 작품 세계에 대해 의미부여를 한다.’고 보는 루카치의 이론은 전통적인 모사론에서 벗어나 수용미학적 이론으로 나아가는 리얼리즘 이론사를 압축한 이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루카치의 이러한 이론적 위상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못했다.<sup>19)</sup> 오히려 루카치의 이론을 따르다 보면 독자를 억압하고 독자에게 작품이 지닌 단일한 의미만을 강요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다.<sup>20)</sup>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루카치에 대한 오해는 사설시조 연구사에서도 있었다. 사설시조 연구에서는 ‘총체성’이라는 용어와 함께 루카치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루카치는 헤겔의 ‘특수자’ 개념을 원용하여 ‘전형’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 ‘전형’ 안에서 우연적인 ‘개별자’와 필연적인 ‘보편자’ 양자가 변증법적으로 지양되고 종합되는 결과로 세계의 ‘총체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루카치가 말하고자 했던 전형은 전형적 인물만이 아니라 그 인물의 행위나 상황까지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

15) G. 파스테르나크, 앞의 논문.

16) Marshall Brown, “The Logic of Realism: A Hegelian Approach”, *MLA*, Vol. 96, No. 2, 1981, 233면.

17) 넬슨 굿맨, 이은주 역, 『예술과의 대화-상징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학문사, 1998, 49~52면.

18) Marshall Brown, 앞의 논문, 233면.

19) 차봉희, 『한국 루카치 수용에서 변증-유물론적 미학이론에 대한 재성찰의 필요성』, 『문예미학』 제4호, 문예미학회, 1998, 361면.

20) 김외곤, 『새로운 소설론의 모색을 위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집, 한국현대문학회, 1997.

러나 루카치 자신이 전형적 환경에 대해서는 상론한바가 없었기 때문에, 루카치의 ‘전형’은 소설에 나오는 인물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굳어지게 되었다.<sup>21)</sup>

‘전형’에 대해 설명하면서 루카치는 세부적인 디테일만으로는 ‘전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전형성이란 대상의 총체성에 대한 평균적 묘사나 세부적 묘사가 작품 전체의 구성과 유기적으로 잘 들어맞아서 생생한 형태로 독자들에게 다가올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sup>22)</sup> 전형은 총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인데, 루카치가 말하는 총체성의 궁극적인 내용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서사를 통해 새롭게 짜여지는 현실’이다. 따라서 비록 그가 “시 역시 현실과 전망의 묘사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sup>23)</sup>라고 강조한바 있을지라도, 세부묘사보다 전체를 강조하는 루카치 이론 체계 안에서는 처음부터 총체성을 추구하는 장르들이 특별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sup>24)</sup>

루카치는 근대 장편소설이야말로 자연발생적인 존재의 총체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된 시대에 형상화를 통해 숨겨진 삶의 총체성을 찾아내어 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장르라고 생각하였다.<sup>25)</sup> 소설의 인물들은 훼손된 총체성을 찾아 분투하는데, 특히 리얼리즘 소설에서 전형적 인물은 “현실에 깊이 파고들면서 동시에 현대 사회 앞에 본질을 폭로하는 거울”이 된다고 설명한다.<sup>26)</sup> 이러한 루카치의 이론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막론하고 소설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sup>27)</sup> ‘전형’, ‘총체성’, ‘전망’, ‘문체적 개인’ 등과 같은 루카치의 핵심 개념들은 주석 없이 쓰일 만큼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21) 김용락, 『루카치와 80년대 전형논쟁』, 『문예미학』 제4호, 문예미학회, 1998, 338면.

22) 이강은·이기웅, 『리얼리즘의 서사구조에서 전형과 탈전형의 논리』, 『러시아연구』 18권 2호,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8, 103면.

23) 게오르그 루카치,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게오르그 루카치, 황석천 역, 『현대 리얼리즘론』, 열음사, 1986, 123면.

24) 한지현, 『전형적 인물의 창조와 작가의 세계관』,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22집, 광운대학교, 1993, 265면.

25)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철당, 1998, 37~64면.

26) 게오르그 루카치, 변상출 역, 『발자크와 프랑스 리얼리즘』, 문예미학사, 1998, 15면.

27) 자세한 내용은 김외곤, 앞의 논문 참조.

이상에서 본 것처럼 서사적 총체성을 강조하는 루카치의 이론을 사설시조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계가 예상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시조 연구에서 그러한 한계는 간과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현실을 파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러한 한계들을 돌아볼 겨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미숙은 고정옥이 사설시조에 보이는 물질성의 자각을 역사적 성격과 물질 토대가 모호한 ‘서민’과 결부시킨 것을 비판하고, 이를 사설시조의 담당층인 중인 계급의 역사적 성격과 물질 토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나아가 중인 계급의 한계로 인해 사설시조가 현실의 총체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전망이 부재하는 것을 비판하였다.<sup>28)</sup>

‘총체성’, ‘전망’과 같은 용어들에서 알 수 있듯이 고미숙의 논의는 루카치의 두 가지 테제<sup>29)</sup>들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전망’이란 문학적으로 일련의 인물들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가운데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객관적인 사회적 발전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러한 테제는 고미숙에 와서 “사설시조의 세계관적 기반은 중세의 관념성을 벗어나 세계의 물질성에 대한 자각과 그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집요한 관심, 현세적 삶에 대한 긍정 등의 전진적 계기를 보여준다.”로 변주된다. 여기서 ‘중세의 관념성을 벗어나’는 행위가 바로 루카치가 말하는 역사적 발전의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객관적인 사회적 발전에 대한 ‘전망’은 상승기의 진보적인 부르주아지와 이후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만이 지닐 수 있다.” 이러한 테제 또한 고미숙이 “그러나 (‘중세의 관념성을 벗어나’) 이러한 계기는 창조적 개성 지향과 연결되지 못하고 기생적 삶의 방식에 침잠함으로써 소모적 찰나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만다.”라고 설명하면서 18세기의 중인계급과 19세기의 중인계급의 역사적 성격을 구분할 때 활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과연 루카치적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루카치의 ‘전망’ 개념은 앞서 살핀 ‘총체성’, ‘재현’ 등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범

28) 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 『어문논집』 제30집, 안암어문학회, 1991.

29) 김경식, 『게오르크 루카치-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한울아카데미, 2000, 154면.

주'가 아니라 '미학적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루카치의 이론적 사유에서 문제영역은 개별 인간으로서 작가가 지닐 수 있는 직접적인 전망 그 자체가 아니라 문학적·예술적으로 형상화된 전망이다.<sup>30)</sup> 고미숙은 담당층이 지니고 있는 현실의 직접적인 전망에 따라 문학적 성취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루카치와는 상당히 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루카치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연구자 개인의 한계라기보다는 시대적 한계로 해석된다. 폭압적인 현실과 피폐한 민중의 삶이 생생한 리얼리티를 지니던 80년대의 한국적 상황에서 미학적으로 형상화된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반동적이고 부도덕하게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변혁운동에 필요했던 것은 철학적·미학적 문제에 집중했던 후기 루카치가 아니라, '반파시즘 통일전선과 사회주의' 등의 문제를 다룬 1930년대의 루카치였던 것이다.<sup>31)</sup>

이를 감안하더라도 루카치를 수용하면서 정작 루카치의 이론적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은 주체와 객체를 미학적인 '재현' 개념으로 종합하고, 우연적인 '개별자'와 필연적인 '보편자'를 미학적인 '전형' 개념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며, 리얼리티가 독자의 지각 속에 있다는 수용미학적 측면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이론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한다. 이러한 위상과 무관하게 국내에 수용된 루카치는 마치 '문학이 재현에 앞서 존재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주장을 한 이론가로 치부된 감이 있다. 이것이 이후 연구사에서 사설시조의 시적 성취를 '재단'하거나 '경직', '편향'되게 바라보게 만든 주범으로 루카치의 리얼리즘을 지목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설시조 연구사에서 루카치의 이론이 충실히 적용되었다면 어땠을까? 우선 작품 속에서 현실과의 직접적인 대응 관계를 찾기보다는 언어를 통해서 현실이 어떻게 해석되고 구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사설시조의 작품세계를 미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상당한 진

30) 위의 책, 157면.

31) 일반적으로 사회변혁을 위한 문학비평 이론을 쏟아내었던 1930년대의 루카치를 전기 루카치로, 이후 『미적인 것의 고유성』과 『존재론』을 저술한 루카치를 후기 루카치로 구분한다.

척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루카치 이론이 지니는 한 계로 인해 사설시조의 리얼리즘적 성취가 가려질 우려도 전혀 없지 않다.

루카치는 『서사나 묘사나』(1936년)에서 표명한 자연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후기 저작에서도 크게 바꾸지 않았다.<sup>32)</sup> 그가 보기에 사물에 대한 묘사는 그 자체로는 인물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연주의 작가 줄라가 보여준 특별한 관찰에 입각한 묘사는 사람을 정물적인 생명으로 변형 시키고, 창작물의 단조로움으로 귀착되며, 이념적으로 취약한 작가들이 쓰는 방법일 뿐이다. 그에 비해 서사에서 사물들은 인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총체적인 세계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sup>33)</sup> 사물은 그 자체로 묘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통해 인간적 의미로 환원될 때만이 의미 있는 세계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루카치의 생각이다.

사물의 의미에 대한 루카치의 평가절하는 본래 ‘사물’이라는 말에서 출발하여, 사물들을 말들보다 높이고, 삶을 예술보다 높이려는<sup>34)</sup> 리얼리즘의 객관주의 정신을 희석시킨다. 지나친 세부묘사에 대한 악평<sup>35)</sup>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초반 작가와 비평가들이 리얼리즘을 옹호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희석은 리얼리즘 정신의 후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기 리얼리즘을 옹호한 비평가들은 작가가 자기의식을 ‘복화술’로 말하는 주관성의 반복을 제어하는 리얼리즘의 기능을 높이 샀다. 리얼리즘이 사소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범주들, 예를 들면 부정적인 것, 사적인 것, 쇠퇴하는 것, 아주 작은 것들 위에서 번창해 왔던 것도,<sup>36)</sup>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작

32) 루카치는 1950년대에 쓴 글에서도 ‘사진을 찍듯’ 세부적 묘사에 치중하는 자연주의의 기계적 반응을 비판하고, 이러한 문학들은 부르주아 이념이 갖고 있는 퇴폐성의 반영이라는 30년대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김현수, 『루카치의 문이론 연구: 사실주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1집, 장안전문대학 사회과학연구소, 2002.)

33) 게오르그 루카치, 『서사나 묘사나-자연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한 예비토의』, 르네 웰렉 외, 최유찬 외 역, 『리얼리즘과 문학』, 지문사, 1985, 177~217면.

34) Robert Scholes, *The Fabulato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11면.

35) 19세기의 희극 이론가 메레디스는 당시 유행하던 리얼리즘이 보여준 세부묘사를 ‘역겨운 리얼리즘’이라 헐뜯었다. 그에 따르면 ‘역겨운 리얼리즘’은 끝없이 계속되는 물질의 더미를 재현하는 데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인간행동에 대한 그대로의 기록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고 고발하였다.(E. Arthur Robinson, “Meredith’s Literary Theory and Science: Realism versus the Comic Spirit”, *PMLA*, Vol. 53, No. 3, 1938.)

36) Marshall Brown, 앞의 글, 232면.

가가 자신의 자아를 낭만적으로 고양하려는 주관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37)</sup>

우연하고 사소한 객관적인 사물들이 지닌 이런 ‘주관성의 제어 기능’을 놓치고 있는 루카치의 이론은 사설시조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설시조에 들어온 사물들은 “기발하고도 구체적인 호소력을 발휘”하고,<sup>38)</sup> “의식의 청소를 가능하게 하는 비유의 매체”<sup>39)</sup>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 재현된 인간 세계에 대해 모종의 제어력을 지니기도 한다. 바로 이 점에서 루카치 리얼리즘이 단순 적용되지 않고 온전히 적용되었다라도 사설시조의 작품세계를 완벽하게 해명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이르게 된다. 다음에서는 사설시조에 나타난 리얼리즘적 성취를 살펴면서 이러한 가정이 옳은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 3. 사설시조의 리얼리즘적 성취

#### (1) 현실의 미학적 재현

미학적 범주로서의 루카치의 ‘재현’ 개념은 사설시조에서 현실이 재구성되는 양상을 분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사설시조 연구사에서 담당층 논쟁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의 사설시조 연구에서는 특정 사설시조 작품이 특정한 담당층의 세계관과 그들 삶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김수장의 사설시조는 그의 유흥적 삶을 그대로 재현한 작품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목된바 있다.

37) René Wellek, “The Concept of Realism in Literary Scholarship”,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ersity, 1963, 247면.

38) 김홍규, 『누추한 삶과 욕망의 온도: 사설시조의 세계』,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2010.8.28. ~2010.9.25.

39)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제3권, 지식산업사, 2005, 332면.

陽春이 布德호니 萬物이 生光揮라  
 우리 聖主는 萬壽無疆호스 億兆 | 願戴已호고 群賢은 忠孝호야 愛民至治호  
 고 老少에 벗넘네도 無故無恙커늘 名妓歌伴期會호야 細樂을 前導호고 水陸珍  
 味 五六태에 金剛山 도라 들어 絶對名勝 求景호고 醉호 잠에 꿈을 꾸니 꿈에  
 호 늙은 蟲이 邀我引導호야 吳楚 東南景과 齊州九點烟을 歷歷히 盤廻호며 其  
 間의 英雄 豪傑들의 叱咤를 무를썩에 夕鐘聲에 叱거고나 朝飯을 食축호야 望  
 月懷陵으로 正菴齋室 霽月光風 水洛山寺 玉流川에 塵纓을 拭은後에 文珠菴  
 中興寺에 軟泡杯酒호고 晴日에 登臨白雲峰호니 咫尺 天門을 手可摩 | 라 萬  
 里 江山 遠近 風景이 眼底에 森羅호야 丈夫의 胸襟에 雲夢을 삼켓는 듯 브른  
 비 내려 오니 簫鼓는 喧天호야 洞壑이 울리는 듯 山映樓 올라안즈 花煎에 點  
 心호고 伽倻고 김은고에 가즌 箏笛 섯것는되 男歌女唱으로 終日토록 노니  
 다가 扶旺寺 긴 洞口에 軍樂으로 드러간이 左右에 섯는 將丞 分明이 반기는  
 듯 往來 遊客들은 못니 부러 호듯드라

암아도 壽城春臺에 太平間民은 우리론가 호노라 (『海東歌謠(周氏本)』  
 #563, 金壽長)

위의 시조는 김수장이 금강산을 다녀오고 나서 다시 서울 북쪽의 삼각산  
 에 올라 중흥사와 백운봉 일대를 여러 악공(歌伴), 기녀(名妓)들과 더불어  
 유람하고 나서 그 장쾌한 흥취를 읊은 사설시조이다. 김수장은 이 작품 외  
 에도 ‘필운대’, ‘소격서터(삼청동)’, ‘탕춘대’ 등 서울의 대표적 유흥처에 가  
 서 細樂과 歌舞로 즐기는 흥취를 노래한 사설시조를 여러 편 남기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중간계층의 유흥적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사  
 설시조의 담당층을 중간계층으로 보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sup>40)</sup> 그런데 이  
 작품에는 병조 서리 신분을 이용하여 물질적 부를 축적하고 기방문화를 장  
 악했던 김수장의 삶과는 다소 무관해 보이는 내용들도 눈에 띈다.

우선 “우리 聖主는 萬壽無疆호스 億兆 | 願戴已호고~”에서는 자신들의  
 유람이 王都로서의 상징적 공간으로의 유람이라는 의식을 보여준다. 왕도

40) 강명관, 『사설시조의 창작 향유층에 대하여』,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210~213면.

로서의 서울은 조선왕조가 추구하는 유교적 이념과 가치가 조화롭게 구현되어 있는 태평성대의 공간으로 그려져 있는데,<sup>41)</sup> 김수장도 이러한 이미지에 기대어 삼각산 일대를 유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유람의 장소들은 사대부 작 사설시조에 나오는 장소들과 거의 일치한다.

洛陽城裏方春和時에 草木群生이 皆自樂이라

冠者 五六人과 童子 六七 거느리고 文殊重興으로 白雲峰登臨하니 天門이 咫尺이라 拱北三角은 鎮國無疆이오 丈夫의 胸襟에 雲夢을 숨겼는 듯 九天銀瀑에 塵纓을 씻은 後에 杏花芳草夕陽路로 踏歌行休하여 太學으로 도라오니 曾點의 詠歸高風을 미쳐 본 듯 ㅎ여라 (『진본 청구영언』 #570)

이 작품은 병와 이형상이 편찬한 『병와가곡집』에는 北軒 金春澤(1670~1717)의 소작으로 실려 있다. 金春澤은 당대의 대표적 문장가인 김창협 형제와 교분을 가지면서 그들의 문학론에 영향을 입은 인물이다.<sup>42)</sup> 김창협 학파는 擬古의 文風에 반대하고 天機의 자발적인 유로를 위해서 산수를 직접 관찰·체험하고 어느 한 순간 솟아오르는 고조된 감흥을 펴진하게 그려 내려 노력하였다.<sup>43)</sup> 이러한 문학론을 바탕으로 김창협과 그 주변의 문인들은 금강산을 소재로 삼아 산수의 진경을 노래하는 새로운 사조의 시들을 추구하였으며,<sup>44)</sup> 자신들의 거주지 가까이 있었던 삼각산과 인왕산도 그들의 시론을 실천하는 장소로 삼았다. 조선 전기부터 王都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삼각산과 인왕산은 경화사족과 그 주변 문인들·화가에 의해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관찰하고 체험하는 장으로 인식되었다.<sup>45)</sup>

41) 조선 후기 시가에 나타난 王都로서의 서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정인숙, 『조선 후기 시가를 통해 본 서울의 장소성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34집, 한국시가학회, 2013 참조.

42) 김영주, 『北軒 金春澤의 文學論 研究』, 『대동문학회』 제15집, 대동한문학회, 2001.

43) 정우봉, 『김창협 시론의 비평사적 의의』, 『어문논집』 제31집, 민족어문학회, 1992, 211~212면.

44) 강혜선, 『17·8세기 금강산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17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45) 김창협 형제를 추종하면서 白岳山과 仁王山 아래의 順化坊에 世居하던 서인 자제들을 白岳詞壇이라 일컫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진경시문학이 크게 흥기하였다.(최완수, 『謙齋 鄭敎』, 현암사, 2009, 67면.)

그런가 하면 삼각산의 증홍사가 있는 증홍동은 사대부들의 교양을 계발하는 공간이라는 문화적 의미를 축적하고 있는 곳이다. 조선전기 이전부터 삼각산의 증홍사는 선비들의 독서처로 유명했고, 17세기 이후로는 월사 이정구, 성호 이익, 농암 김창협 등이 삼각산을 유람하면서 시문을 창작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sup>46)</sup> 위의 작품에서 유람의 시공간적 배경은 “洛陽城裏 方春和時”이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冠者 五六人과 童子 六七”이며, 유람으로 얻은 것은 “曾點의 詠歸高風”이고, 유람 후에 돌아오는 곳은 “太學”이었다. 이 작품에서 삼각산 일대의 유람을 통해 갖근에 묻은 세속의 티끌(塵纓)을 씻고 曾點의 기상을 추체험하는 사대부들의 정신적 여유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공간에 깃든 사대부들의 교양 문화 가운데는 풍류를 질탕하게 즐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월사 이정구(1563~1635)는 김수장보다 앞선 시기에 악공과 기녀를 대동하고 삼각산 일대를 유람하였다. 이정구가 속한 연안 이씨 집안은 이후 가곡사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sup>47)</sup> 김수장과 동시대인이었던 이정보(1693~1766)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수장은 『해동가요』를 두 번째 개편할 때 이정보의 작품을 새로이 보완하여 수록한 만큼,<sup>48)</sup> 연안 이씨 집안의 가곡 문화에 익숙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김수장이 전시대 사대부들과 동일한 공간을 유람하면서 “水洛山寺 玉流川에 塵纓을 씻은後”에 삼각산 증홍사로 들어갈 때 사대부들이 누렸던 정신적 여유와 풍류에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김수장이 실제로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현실의 작가와 구분되는 시적 화자는 사대부들의 교양 문화가 깃든 삼각산을 유람하면서 그 공간에서 요구되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수장의 사설시조에 나오는 “文珠菴 中興寺에 軟酒杯酒”라는 구절이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월사 이정구가

46) 최재남, 『백운봉 등림 시조의 변이 양상과 현실성 검토』, 『진단학보』 제111집, 진단학회, 2011, 215~241면.

47) 최재남, 『이정구의 가곡과 풍류에 대한 인식 고찰』, 『반교어문연구』 제32집, 반교어문학회, 2012, 203~231면.

48) 신경숙, 『사대부가 노래한 시정 풍속도-이정보의 사설시조』,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제2권, 휴머니스트, 2006, 248~267면.

삼각산을 유람하고 지은 <遊三角山記>를 보면 중흥사에서 숙박할 때 승려들이 軟泡를 장만하여 자기 일행을 대접한 내용이 나온다. 사대부층의 전유물이었던 백운봉 등림과 풍류의 놀이마당이 이제 가객이나 무반 계층에게도 열려지게 되었을 때,<sup>49)</sup> 시적 화자는 중흥사에서 연포를 대접받던 사대부들의 풍류를 “文珠菴 中興寺에 軟泡杯酒”라는 언어를 통해 상상적으로 추체험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시적 화자가 삼각산 유람의 계기를 설명하면서 “꿈에 혼 늙은 중”을 운운하는 것도 그러한 상상적 추체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월사 이정구의 <遊三角山記>에는 금강산을 다녀 온 후에 일상으로 돌아와 무료로 지내다가 ‘중흥사의 승려 천민’의 서찰을 받고 삼각산 유람을 떠나게 되는 사정이 나오는데, 김수장의 사설시조도 꿈에 나온 한 늙은 중이 이곳저곳 좋은 곳을 보여 주기에 금강산을 다녀온 뒤에 다시 삼각산을 향하여 유람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대부들의 작품에서 중들은 세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대부들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물질적 부와 주변 환경으로 보아 언제든지 유흥처를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김수장이 굳이 “꿈에 혼 늙은 중”을 운운하는 것은 그렇게 유람을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멋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꿈에 나온 중이 보여 주는 “吳楚東南景”은 杜甫의 <登嶽陽樓>에 나오는 한 구절이고, “齊州九點烟”은 李賀의 시 <夢天>에 나오는 구절이라는 점도 김수장의 작품을 중간계층의 향락적·소비적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한 작품으로 볼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이상에서 김수장의 사설시조가 경화사족들의 유람처였던 삼각산 일대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대부들의 문화적 내용을 작품 속의 현실로 재구성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동시대 태학의 선비들이 삼각산 유람을 통해 會點의 기상을 추체험하듯, 김수장은 사대부들의 문화를 따라 동일한 시공간에서 세속의 티끌을 씻으며, 월사 이정구의 풍류를 따라 난만한 음악 문화를 즐기기도 한다. 사설시조 작품 속에서 언어를 통해 재구성된 현실은 한 계층의 현실적 삶을 뛰어넘는 미학적인 현실로 볼 수 있

49) 최재남, 앞의 논문(2011), 237면.

다.

나는 님 헤기를 嚴冬雪寒에 孟嘗君의 狐白裘 ㄹ고  
 님은 날 너기기를 三角山 中興寺에 이 빠진 늑근 중놈에 살 성긴 어리이시로다  
 짝스랑의 즐김흔는 뜻을 하늘이 아르셔 돌려 흐쇼셔 (『진본 청구영언』 #540)

위의 작품에서도 앞서 두 사설시조에서 언급되었던 “삼각산 중흥사”가 등장하지만 그 문맥은 사뭇 다르다. 님을 짝사랑 하는 화자는 자신이 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님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두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두 사물이란 “嚴冬雪寒에 孟嘗君의 狐白裘”와 “三角山 中興寺에 이 빠진 늑근 중놈에 살 성긴 어리잇”이다. 여우의 겨드랑이 흰 털이 있는 부분의 가죽으로 만든 갓옷인 ‘호백구’는 그 자체로도 값지지만 맹상군의 목숨을 살려 준 ‘맹상군의 호백구’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천하의 보물이다. 더구나 이 옷이 ‘엄동설한’이라는 시공간을 만나면 그 가치는 몇 배로 더해지게 된다. 추상적인 이념이 아닌 구체적인 사물 가운데 딱 맞는 시공간에, 딱 맞는 주인에, 딱 맞는 물건처럼 이상적인 것도 드물다. 그렇다면 ‘삼각산 중흥사’라는 시공간에, ‘이 빠진 늑근 중놈’이라는 주인의, ‘살이 성긴 얼레 빛’이란 ‘엄동설한에 맹상군의 호백구’에 대응하는 보잘 것 없는 것들의 집합이어야 할 것이다.

‘살이 성긴 얼레 빛’과 같은 보잘 것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왜 ‘삼각산 중흥사’라는 시공간과 ‘이 빠진 늑근 중놈’이라는 주인이 필요했던 것일까? 조선후기에 중흥사는 전통적인 선비들의 독서처이기도 했지만 백운봉에 오르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휴게소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 그 바람에 중흥사에서 머물던 중들은 백운동을 오르는 문인들의 수발을 담당하느라 괴로움을 겪었다. 숙종 때의 인물인 송광연(1638~1695)은 중흥사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거주하던 중들이 급기야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모두 다 떠나고 늑근 중 하나만 남아 자기 일행을 맞이하였다는 증언을 남겼다.<sup>50)</sup>

50) 앞의 논문, 230~231면.

조선후기에 사대부들의 산수유람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이들로는 다른 절의 중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닌 ‘삼각산 중흥사’의 늙은 중을 꼭 집어 지칭함으로써 미학적으로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농암 김창협이 중흥사를 찾아가서 지은 시 <訪重興寺>를 보면 속세의 기운이 없는 고요한 절간 방에서 역시 속세에 뜻이 없는 스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다.<sup>51)</sup> 이로써 보면 ‘삼각산 중흥사의 늙은 중’은 세속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삶의 조건을 지닌 인물인 동시에, 바로 그로 인해 고매한 사대부가 우정을 나누고 싶은 가장 비세속적인 인물이 되기도 한다.

참고로 사설시조에 나오는 중들은 사회의 일원이 되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범이나 가치에 속박되지도 않는 존재들로 그려진다. 때문에 사설시조에서 중을 바라보는 시각은 멸시와 연민과 때로는 부러움마저 섞인 이율배반적인 시선을 보여준다.<sup>52)</sup> 이러한 이율배반적 시각은 ‘삼각산 중흥사’의 ‘이 빠진 늙은 중’이 지니고 있는 ‘살 성긴 열레 빛’에도 그대로 투영될 수 있다.

‘이 빠진 늙은 중’과 ‘살 성긴 열레 빛’이 문장구조 상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열레빛도 드문드문 빛살이 떨어져 나간 모습이 상상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열레빛은 참빛과 달리 빛살이 큼직큼직하고 빛살들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볼품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자체로서도 볼품없는 사물이, 자신의 처지와 딱 맞는 주인과 딱 맞는 시공간을 만나니 그 볼품없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말을 찾기 힘들다. 이는 그 자체로 값

51) 김창협, 『農巖集』 제1권 <訪重興寺>에는 “아름다운 산수 속에 언제나 은둔하여(勝處每懷長往志) / 계수나무 부여잡고 스님 함께 머물고파(會攀叢桂共偕留)”라는 구절이 나온다. 원문과 번역은 고전번역원의 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52) 예컨대 <중놈이 젊은 사당년을 얻어...>에서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유리결석하는 처지에 있었던 하층민들이 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연민의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남녀의 분별과 욕망의 억제 강조하였던 규범서에서는 남녀가 한 핏대에 옷을 걸지도 못하게 하였지만 <중놈도 사람인양 하여 자고가니 그림다고...>에서 중과 각시는 서로 장삼과 치마를 바꾸어 덮는 곡진한 애정을 누리며, <으흠 귀 뉘 오시고...>에서는 “홀居師님의 노감탁이 버서 건은 말 곱되 내 곱갈 버서 걸라 왓습니”라고 당당히 말하는 여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저 건너 선사중이...>에서는 충절의 상징인 “소상반죽”을 뿌리 채 빼어 드는 ‘힘이 좋은 중’을 자랑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매기기 힘든 호백구가 맹상군이라는 주인의 것이 되고, 엄동설한이라는 시공간을 만났을 때 그 값어치가 배가되는 것과 정확하게 대비된다.

두 사물의 대비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비단 님과 나의 비대칭적 사랑의 크기만이 아니다. 두 사물을 통해서 ‘소유의 삶’과 ‘무소유의 삶’을 대비할 수 있다면 ‘살 성긴 얼레 빗’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다. 맹상군은 인생무상을 주제로 한 시조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엄청난 부의 소유자였던 그도 죽은 후에 그 영화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그에 비해 ‘중홍사의 늙은 중’은 아무 것도 소유한 것이 없고 다만 그 옆에 ‘살 성긴 얼레 빗’ 하나가 놓여 있는 삶의 주인공이다. ‘살 성긴 얼레 빗’은 이 주인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주인의 것이기에 처음부터 소유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는 물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대비되는 사물들을 자세히 살펴다 보면 짝사랑의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사설시조에서 영똥하게도 “짝사랑의 즐김하는 뜻”으로 귀결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짝사랑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이 처음부터 너무 격차가 나서 결코 가닿을 수 없는 상대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조금도 성공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조건들을 떠나서 설레는 마음을 마음껏 품고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세속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부여받지 못한 ‘이 빠진 늙은 중’이기에 세속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모든 독자들이 위 작품을 이러한 식으로 해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후기에 유행한 삼각산 유람의 현실을 아는 당대의 독자들은 보잘 것 없는 것들을 모으면서 ‘중홍사의 늙은 중’을 들먹이는 것이 참으로 그럴듯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중홍사의 중들과 교류했던 사대부층이나 그 일대에서 풍류를 즐기던 중인가객 및 기녀들 가운데는 자기가 아는 중홍사의 늙은 중을 놀려 먹는 재미를 느끼는 독자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독자라면 늙고 이도 빠진 중이 오직 ‘살 성긴 얼레 빗’ 하나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호사를 누릴 수 없는 누추한 삶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설시조 속에 그려진 현실이 어느 한 계층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

다는 점이다.

미학적으로 재현된 현실을 리얼하게 읽어내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는데, 독자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텍스트 자체이다. “삼각산 중흥사”라는 현실에 존재하는 지시대상을 끌고 들어옴으로써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강한 암시를 준다. 이처럼 사설시조는 현실을 미학적으로 재현하는 한편, 외부의 지시대상을 통해 끊임없이 현실을 재환기한다. 그런데 현실을 미학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사설시조만의 특징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설시조가 외부의 지시대상을 통해 현실을 재환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사설시조의 특유의 리얼리즘적 성취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 된다.

## (2) 사물에 의한 주관성의 제어

나에게 절실하고 특수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될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서정시는 언제나 “황당무계한 주관성”<sup>53)</sup>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리얼리즘 이론가들이 주관성의 낭만적 고양을 경계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리얼리즘과 서정시는 길항 관계에 있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이 길항 관계에 주목하면서 사설시조가 ‘내면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sup>54)</sup> 이는 사설시조에 나타난 리얼리즘을 서정시 장르 안에서 시도될 수 있는 독특한 내면 표현 기법쯤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사설시조를 계속 살펴보니 사설시조가 도입한 외부 사물들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님이 오마흔거늘 저녁 밥을 일지어 먹고

中門 나서 大門 나가 地方 우회 치드라 안자 以手로 加額하고 오는가 가는

53) 루카치는 “시가 성공하려면 황당무계한 주관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서사 장르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본 점에서 시에서의 리얼리즘의 가능성을 루카치가 적극적으로 사고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게오르그 루카치,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의 리얼리즘』, 게오르그 루카치, 황석천 역, 앞의 책, 123면.)

54) 줄고, 『사설시조의 우화적 내면 표현』, 『한국 고전시가의 서정시적 탐구』, 월인, 2009.

가 건넌 山 바라보니 거머뿔들 서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것비넙의 곱비넙의 천방지방 지방천방 즈 되 므른 되 곶희  
 지 말고 위령충창 건너가서 情엿 말흐려 호고 것눈을 흘끗 보니 上年七月 사  
 혼날 곶가벽긴 주추리 삼대 솔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만정 흥혀 낮이런들 늬우일 번흐괘라

(『진본 청구영언』 #580)

위의 작품은 어떤 여인이 기다리던 님이 온다고 하여 저녁밥도 일찍 지어 먹고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건넌 산에 “거머뿔들” 서 있는 것을 님이라고 여겨, 허둥지둥 달려가는 소동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정다운 말을 하려고 곁눈으로 흘끗 보니 그 “거머뿔들” 서 있던 것이 다름 아닌 “上年七月 사혼날 곶가벽긴 주추리 삼대”라는 것을 발견하고 허탈해하는 내용이다.

한밤중에 님을 만나려고 거리낌 없이 집을 나서는 이 여인이 과연 여염집 여인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진본 청구영언』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작품이 가객과 기녀들에게 애송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특히 착각모티프는 기다림을 숙명처럼 지닐 수밖에 없는 기녀들이 즐겨 부르며 전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sup>55)</sup> 그러나 사실시조가 작가나 향유층의 삶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학적으로 재구성한다고 보는 이 글의 관점에 따르면, 이 작품은 시적 화자를 여염집 여인으로 상정할 때 가장 긴장감 있는 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먼저 “中門 나서 大門 나가”에 나오는 ‘중문’과 ‘대문’이라는 사물을 의미를 생각해 보자. ‘중문’은 양반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문이었다. 『禮記』에 “부인은 낮에 뜰을 거닐어도 안 되고 까닭 없이 中門을 나가서도 안 된다.”라고 한 것을 근거로 중문을 나가는 것은 곧 失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sup>56)</sup> 그런데 만일 이 작품의 화자를 기녀

55) 조성진, 『화자의 ‘시선’과 사실시조의 담담층 문제-명대 악부민가와외의 비교를 통해』, 『국문학연구』 제26호, 국문학회, 2012, 86~92면.

56) <범벽타령>이나 <훗사나 타령>과 같은 민요에서도 ‘훗사나(셋서방)’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중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나가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중문을 나서는 행위가 사

로 본다면 굳이 “中門 나서 大門 나가” 님을 만나러 갈 이유가 없어지므로, 失節의 상징적 경계를 넘느냐 마느냐 하는 긴장감도 사라지고 만다.

초장으로 돌아가 보면 한시바빠 님을 만나야 하는데 저녁밥을 지어 먹을 정신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여염집 여인이라면 이해가 된다. ‘중문을 나가 지 말라’는 규범은 거리낌 없이 어기면서도 ‘베 짜고 밥 짓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규범을 내면화 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57)</sup> 시적 화자를 밥 짓고 베 짜는 여인으로 볼 때, 님을 만나는 시간을 간절하게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민요에서 “절구질하는 방아야, 언제 절구질 끝내고, 내 입 보러 가리…”<sup>58)</sup>라고 노래하듯이 님을 보러 간다는 희망은 모진 노동을 견디는 동력이 된다. “上年七月 사흔날 굴가벽긴 주추리 삼대”라는 지시대상 또한 이 작품의 시적 화자를 평상시 노동에 종사하는 여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수확할 무렵의 삼대가 보통 170cm 정도의 크기가 되니, 멀리서 보면 어린 남자로 착각할 만하다. 흥미롭게도 “上年七月 사흔날 굴가벽긴 주추리 삼대”는 안동포의 제작 과정을 연상케 한다. 안동 지역에서는 음력 칠월 초에 삼대를 수확하여,<sup>59)</sup> 곁겍질을 훑어낸 속겍질을 가지고 베를 짜는데, 이 속겍질을 ‘제추리(계추리)’라 일컫는다.<sup>60)</sup> 김형수의 <월여농가>에는 “촌중이 힘을 합해 구덩이를 깊게 파서/ 삼 줄기 베어 묶고 찌서 곱질 다 벗겨서”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러한 정보들로 추정해 보면 시적 화자는 안동 지역의 여염집 여인으로서 여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삼대를 찌서 값아 벗기는 힘든 노동을 날짜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추리 삼대’와 대면하는 순간 “모쳐라 밤일식만정 형혀 낮이런들 늬우일 변험패라”라고 안도하면서 다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재빨리 돌아올 수

을 상징한다는 것이 전 사회 계층에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7)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졸고, 『조선시대 규범서를 통해 본 사설시조의 희극성』, 『국어국문학』 제159호, 국어국문학회, 2011 참조.

58) 이능화, 김상익 역, 『조선여속고』, 동문선, 1990, 386면

59) 김명자, 『안동의 주요 생업과 생업력』, 안동시사편찬위원회, 『安東市史 3-안동의 민속과 문화』, 영남사, 1999, 83면.

60) 김점호 구술, 유시주 편, 『베도 술한 베 짜고 밭도 술한 밭 매고-안동포 “길쌈 아낙” 김점호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1990, 189면.

있는 것이다.

만일 이 작품이 기대와 좌절 사이에서 엄청난 낙차를 겪는 내면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면 여타 착각모티프 시조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낙엽’ 소리에 속았다고 하면 되었을 것이다. 굳이 “上年七月 사혼날”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주추리 삼대’라는 대상과 대면한 순간, 자신의 현실을 절감하게 되는 인간의 당혹감에 더 방점을 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추리 삼대’는 주인공의 주변에 머물며 그의 삶을 머금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의 삶에 대해서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사설시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관여하고, 인간을 해석하고, 인간의 주관성을 제어하는 사물들이 등장한다. 사물들이 이러한 힘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과 사물이 서로를 관찰한다는 것이다. ‘주추리 삼대’의 힘은 인간이 그 앞에서 아무 것도 숨기지 않는 데서 온다.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다가 어린아이로부터 ‘네 서방에게 이르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니르랴 보자 니르랴 보자…>의 여인처럼 인간들은 사물이나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자신을 노출한다. 이때 사물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면 자신의 욕망을 애써 감추고자 하는 인간의 알팍한 속셈을 훤히 꿰뚫어볼 수 있다. 사설시조는 바로 이 점을 활용하여 자신을 관찰하는 사물의 시선으로 인간을 해석하고, 사물에 대한 관찰에서 얻은 지식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해석에 다가선다.

훈 눈 멀고 훈 다리 절고 痔疾三年 邊頭痛 內丹毒 다 알는 조고만 샷기 개고리  
 一百 원 대 자 장남게 계을을제 쉬이 너겨 소로로 소로로 수로록 허위허위  
 소습 뛰여 올라 안자 누리실 제란 어이실고 나 몰래라 저 개고리  
 우리도 새 님 거러두고 나중 몰라 호노라 (『진본 청구영언』 #562)

위의 작품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높이 46.5미터의

장나무에 올라앉은 병든 새끼 개구리를 묘사하여 ‘새 님’에게 끌리는 불가항력적이고 불안한 욕망을 우스꽝스럽게 그린 작품이다. 사설시조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여 ‘새 님’이나 ‘님의 님’으로 표현된 대상들을 향한 부조리한 욕망과 그로 인한 불안감, 또 한편으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무모한 모험심 등을 표현한 일군의 작품들이 있다. 이들 작품들은 왜 하필 ‘개구리’, ‘게오리’, ‘두루미’, ‘금종달이’,<sup>61)</sup> ‘백송골’과 같은 동물들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일까?

개구리는 앞뒤를 재지 않고 폴짝폴짝 뛰는 습성이 있고, 오리와 두루미는 물의 깊이도 모른 채 물에 둥둥 떠다니는 습성이 있고, 금종달이는 철망에 걸리면 푸덕푸덕 푸드덕 거리는 습성이 있으며, 백송골은 사납고 날쌔서 잡아 길들이기 힘든 습성이 있다. 인간은 이러한 사물들의 습성을 자세히 관찰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의 모습임을 깨닫는다. 남녀가 서로 마음이 맞는 순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느 한 쪽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 된다. 그래서 “일백 선 대 자”가 넘는 장대에 “소로로 소로로 수로록 허위허위 소습 뛰어 올라 안”는 새끼 개구리의 무모함과 패기를 가지지 않는다면 새 님을 얻을 수가 없다. 그 개구리가 온갖 지저분하고 민망한 병을 다 가진 것도 이때는 방해가 되지 못한다. “나중”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작품이 새 님에게 다가가는 쪽의 모자람을 강조하고 있다면 다음 작품은 새 님의 위용을 그린 작품이다.

江原道 皆骨山 감도라 드러 鑰楡店결 뒤혜 우둑 선 전나모 곶혜  
 송그르혀 안즌 白松骨이도 아브려나 자바 질드려 썩 山行 보내는 디  
 우리는 새 님 거러두고 질 못드려 흐노라 (『진본 청구영언』 #456)

“새 님”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상대인가 하면 우선 강원도 금강산 깊은

61) 다음과 같은 사설시조들이 그 예이다. “萬頃蒼波之水에 둥둥 쪼는 부락금이 게오리들아/ 비슬 금성 중경이 동당 강성녀시 두루미들아 너 쪼는 물 기피를 알고 둥 쪼는 모르고 둥 쪼는/ 우리도 늪의 님 거러 두고 기피를 몰라 흐노라”(『진본 청구영언』 #537); “넉큰갑이라 흐 놀로 놀며 두더취라 싸호로 들라/ 금종달이 鐵網에 걸려 풀덕풀덕 프드덕이니 놀다 곱다 네 어드르 갈다/ 우리도 새 님 거러 두고 풀더겨 불가 흐노라”(『진본 청구영언』 #479)

산속 절 뒤에 우뚝 선 전나무 끝에 웅크리고 앉은 송골매와 비견된다. 위의 작품에 나오는 楡岾寺는 그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그곳을 찾아갈 때 말이 모두 등창이 나고 발굽을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 전하는 글이 남아 있다.<sup>62)</sup> 이처럼 가닿을 수 없는 먼 곳, 험한 곳, 높은 곳에 웅크리고 앉은 모양새가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위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송골매도 잡아서 길들일 수 있는데 반해 우리의 “새 님”은 그렇지 못하다.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길들이려는 쪽과 길들이지지 않으려고 하는 쪽 중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가 명백해진다.

“새 님”을 걸어둘 때 그 누구도 “나중”을 알 수 없다. 더구나 새 님은 백송골이보다 더 사나워서 그 나중이 잘못되기 십상이다.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걸어두고 싶다는 욕망에 굴복하는 것이 인간이다. 사설시조는 ‘새끼 개구리’나 ‘백송골’ 등에 빗대어 인간을 압도하고 삼켜버리는 정념의 문제를 관찰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념들은 자칫 인간을 주관성의 블랙홀로 빨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정념들이지만, 사설시조는 사물을 관찰하는 냉정한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객관주의적 태도를 잃지 않는다.

두 번째로 주관성을 제어하는 사물들의 힘은 사물들이 실제로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서 온다.

나모도 바회돌도 업슨 뵈혜 매게 췌친 가토리 안과

大川 바다 한 가운데 一千石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닻도 일코 농총도 근코  
대도 갓고 치도 빠지고 바람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계 즈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 나른디 四面이 거머 어득 저못 天地寂寞 가치 노을 췌느디 水賊 만  
난 都沙工의 안과

옛그제 님 여훤 내 안회야 엇다가 7을 흐리오 (『진본 청구영언』 #572)

위의 작품은 이별의 슬픔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눈에 들어오는 것은 까투리와 도사공의 신산한 삶의 조건들이다. 비록 화자가 “옛그제 님 여훤 내

62) 이곡, 『東遊記』, 『가정집』 제5권.

안희야 엇다가 7을 흐리오”라고 강변하더라도 까투리와 도사공의 처지를 말해주는 많은 정보들이 화자의 주장에 공감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신을 숨겨줄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는 죽음을 구체적으로 맞닥뜨리지만, 님과 이별한 화자는 기껏해야 죽을 만큼 괴로울 따름이다.

증장에 나오는 도사공의 형편은 더욱 딱하다. 조력자가 없는 “大川 바다 한 가운데”, “一千石 시른 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도사공은 원래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노’와 ‘닷’과 ‘용충’과 ‘대’와 ‘치’를 차례로 잃으면서 견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만다. 갈 길이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어두워지며 불길한 노을<sup>63)</sup>까지 뜨니 불안감은 견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 드디어 水賊을 만난 상황은 이러한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처럼 앞이 막 막힌 상황에서 도사공은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고,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결정을 어떤 식으로든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 작품이 ‘사공’의 마음이 아니라 ‘도사공’의 마음에 주목한 것은 그 극한의 내몰림에 주목했다는 증거이다.

만약 시적 화자가 이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내면의 괴로움을 호소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까투리나 도사공과 비교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까투리와외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로 죽음이 맞닥치는 것과 죽을 만큼 괴로운 것과의 경중을 비교하게 만들어 이별의 슬픔을 상대화시켰기 때문이다. 증장에서는 도사공이 거느리고 있다고 믿었던 물건들이 사라지면서 그의 능력이나 존재 의미도 상실되는 사태가 드러나 있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인간이란,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를 둘러싼 주변 사물들로 구성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인간 자체가 별것도 아닌 존재인 까닭에 오늘 내가 이별을 당하여 죽고 싶은 이 마음도 그 사소한 존재의 사소한 일부분일 따름이다. 온 세상을 꽉 채우고도 남는 것처럼 여겨지던 자아가 아주 작은 세계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

63) 본문의 “가치 노을”에 대해서 정병욱 교수는 ‘사나운 파도’라고 주석한 데 반해, 김홍규 교수는 오늘날 ‘까치날’이란 말의 뜻 그대로 ‘석양을 받은 수평선 부근에서 물결에 번득거리는 노을’이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서는 김홍규 교수의 해석을 따른다. (줄고, 『손진태의 『朝鮮古歌謠集』을 통한 사설시조 난해어구의 해석』, 『국문학연구』 제22호, 국문학회, 2010 참조.)

는 순간 자신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사설시조는 ‘사실 세계의 시적 변형’이라는 방식으로 현상적인 다양함을 주관적인 내면이라는 필터에 인식론적으로 거르고 세련되게 만들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객관적 실재와 주관의 인식이 그렇게 쉽게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주관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물들을 통해 인간을 둘러싼 사회 현실들을 재환기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사설시조의 독특한 리얼리즘적 성취라고 생각된다.

#### 4. 결론

이 글은 사설시조가 보여준 리얼리즘적 성취를 통해 문학이 사회 현실을 어떻게 환기하고 재구성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사설시조에서 리얼리즘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 글에서는 루카치의 리얼리즘 이론이 사설시조 연구에 어떻게 잘못 적용되었는지를 살피고, 루카치 이론으로 해명되기 어려운 사설시조의 리얼리즘적 성취를 규명하였다.

2장에서는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에서 재현(representation)이 미학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설시조 연구사에서 그 점이 간과된 것을 지적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사설시조가 특정 계층의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리얼리즘이 사설시조의 시적 성취를 재단한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루카치의 재현 개념을 제대로 적용했다라고 우연하고 사소한 객관적인 사물들이 지니는 ‘주관성의 제어 기능’을 놓치고 있는 루카치의 이론은 사설시조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3장에서는 사설시조가 특정 계층의 사회 현실이나 삶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있는 그대로 모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사설시조는 현실을 미학적으로 재현하는 동시에 그렇게 재현된 세계가 인간의 주관성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외부 사물을 도입하여 사회 현실을 재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향하여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하게끔 하는 수준의 리얼리즘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면들은 2장에서 예상한 대로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으로 해명되기 힘든 측면들이다.

서구 학자들이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을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으로 평가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서구에서는 인간 주변의 사물들을 우연한 존재로 보고 그것들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필연성을 가지는 단계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 루카치 이후에 더 진전된 리얼리즘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서구의 리얼리즘론이 사물을 그 자체로 묘사하는 것을 비인간적이고, 자연주의적이고, 비예술적으로 간주하는 인간중심적 시각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sup>64)</sup> 따라서 사물이 인간적인 의미로 환원되기 이전에 그 자체로서 지니는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데서 나온 사설시조의 리얼리즘적 성취를 온전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학의 특수성과 이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리얼리즘 이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sup>65)</sup>

새로운 이론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현실과 문학이 서로 다른 범주라는 것을 인정하고<sup>66)</sup> 문학에 의해 재구성되는 현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는 재구성되는 현실에는 인간의 주관만이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주하는 시공간, 그 시공간을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사물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는 문학이 현실을 재구성할 때 기호와 지시대상 사이에서 작용하

64) 데미안 그랜트, 앞의 책을 참조하면 서구에서 제출된 어떤 리얼리즘론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5) 이 문제는 실학과 문학을 연구한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진지하게 모색된 바 있다. 김명호는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에도 ‘총체성’의 요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리얼리즘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실학파의 문학론이 하나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리얼리즘에서 ‘총체성’의 문제란 달리 말하면 개별적으로 경험하되 그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도’를 인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찮은 것’에 내재한 ‘도’를 추구했던 실학과 문학론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김명호, 앞의 논문), 박희병은 사물을 따라잡기 위한 언어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친 연암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루카치 이론에 결여되어 있었던 ‘언어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리얼리즘 이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박희병, 앞의 논문.)

66) 데미안 그랜트, 앞의 책, 86면에서는 평면적인 문학과 구형으로 된 사회 현실을 동일시하려는 태도 자체가 무리임을 지적하고, 가장 건전한 입장은 예술과 인생이 각각 다른 범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리얼리즘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논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바이나, 문학도 사회 현실 못지않은 구형의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는, 언어의 발달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사랑의 즐거움하는 뜻’과 같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른 뜻을 무의식적으로 노출하는 언어가 쓰인 곳에서 문학과 사회 현실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사설시조가 사회 현실을 재현하고 환기하는 방식을 고찰하고, 사설시조의 리얼리즘적 성취를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구성 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거칠게 살피는 데 그쳤지만 사물의 의미와 주관성의 길항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하면서 사설시조의 리얼리즘을 해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실학과 문학 연구에서 얻은 성과를 적극적으로 참조하면서 사설시조의 리얼리즘을 당대의 시대적 과제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해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다루면서 우리 문학사에서 18·19세기를 과연 리얼리즘의 시대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점호 구술, 유시주 편, 『베도 술한 베 짜고 밭도 술한 밭 매고-안동포 “길쌈 아낙” 김점호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1990.
- 김창협, 『農巖集』 제1권.
- 이곡, 『東遊記』, 『가정집』 제5권.
- 이능화, 김상억 역, 『조선여속고』, 동문선, 1990.
-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http://www.minchu.or.kr>)

## 2. 단행본

- 강명관, 『사설시조의 창작 향유층에 대하여』,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 고정희, 『사설시조의 우화적 내면 표현』, 『한국 고전시가의 서정시적 탐구』, 월인, 2009.
- 김경식, 『게오르그 루카치-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한울아카데미, 2000.
- 김명자, 『안동의 주요 생업과 생업력』, 안동시사편찬위원회, 『安東市史 3-안동의 민속과 문화』, 영남사, 1999.
- 김홍규,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식민지 근대성론과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이중 비판』, 창비, 2013.
- 박희병, 『박지원 사상에 있어서 言語와 冥心』,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 신경숙, 『사대부가 노래한 시정 풍속도-이정보의 사설시조』,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제2권, 휴머니스트, 2006.
-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제3권, 지식산업사, 2005.
- 최완수, 『謙齋 鄭澈』, 현암사, 2009.
- G. 루카치,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게오르그 루카치, 황석천 역, 『현대 리얼리즘론』, 열음사, 1986.
- G. 루카치, 『서사냐 묘사냐-자연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한 예비토의』, 르네 웰케 외, 최유찬 외 역, 『리얼리즘과 문학』, 지문사, 1985.
- G.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철당, 1998.
- G. 루카치, 변상출 역, 『발자크와 프랑스 리얼리즘』, 문예미학사, 1998.
- N. 굿맨, 이은주 역, 『예술과의 대화-상징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학문사, 1998.
- D. 그랜트, 김중운 역, 『리얼리즘』, 서울대출판부, 1987.

- Preminger, A. and T.V.F. Brogan eds.,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Scholes, Robert, *The Fabulato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Craig, Edward ed., *Concise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 Wellek, René, "The Concept of Realism in Literary Scholarship",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ersity, 1963.

### 3. 논문

- 강혜선, 「17·8세기 금강산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17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91~111면.
- 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 『어문논집』 제30집, 안암어문학회, 1991, 43~80면.
- 고정희, 「손진태의 『朝鮮古歌謠集』을 통한 사설시조 난해어구의 해석」, 『국문학연구』 제22호, 국문학회, 2010, 161~188면.
- 고정희, 「조선시대 규범서를 통해 본 사설시조의 희극성」, 『국어국문학』 제159호, 국어국문학회, 2011, 31~58면.
- 김동준, 「조선후기 ‘朝鮮風’ 漢詩에 대한 재론」, 『국문학연구』 제10호, 국문학회, 2003, 59~84면.
- 김명호, 「실학과 문학과 근대 리얼리즘-연암의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87~99면.
- 김영주, 「北軒 金春澤의 文學論 研究」, 『대동문학회』 제15집, 대동한문학회, 2001, 195~219면.
- 김외곤, 「새로운 소설론의 모색을 위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집, 한국현대문학회, 1997, 170~186면.
- 김용락, 「루카치와 80년대 전형논쟁」, 『문예미학』 제4호, 문예미학회, 1998, 335~346면.
- 김학성, 「18·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한국시가연구』 제11집, 한국시가학회, 2002, 5~28면.
- 김현수, 「루카치의 문학이론 연구: 사실주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1집, 장안전문대학 사회과학연구소, 2002, 269~280면.
- 김홍규, 「누추한 삶과 욕망의 온도: 사설시조의 세계」,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2010.8.28.~2010.9.25.
- 손영주, 「문학에서의 재현(representation)에 관하여-게오르그 루카치, 롤랑 바르

- 트, 자크 데리다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7.
- 이강은·이기용, 『리얼리즘의 서사구조에서 전형과 탈전형의 논리』, 『러시아연구』 18권 2호,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8, 89~113면.
- 임형택, 『실학사상과 현실주의 문학』, 『제4회 동양학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0.
- 정우봉, 『김창협 시론의 비평사적 의의』, 『어문논집』 제31집, 민족어문학회, 1992, 195~216면.
- 정인숙, 『조선후기 시가를 통해 본 서울의 장소성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34집, 한국시가학회, 2013, 119~150면.
- 조성진, 『화자의 ‘시선’과 사설시조의 담당층 문제-명대 악부민가와와의 비교를 통해』, 『국문학연구』 제26호, 국문학회, 2012, 57~96면.
- 차봉희, 『한국 투카치 수용에서 변증-유물론적 미학이론에 대한 재성찰의 필요성』, 『문예미학』 제4호, 문예미학회, 1998, 347~410면.
- 최재남, 『백운봉 등림 시조의 변이 양상과 현실성 검토』, 『진단학보』 제111집, 진단학회, 2011, 215~241면.
- 최재남, 『이정구의 가곡과 풍류에 대한 인식 고찰』, 『반교어문연구』 제32집, 반교어문학회, 2012, 203~231면.
- 한지현, 『전형적 인물의 창조와 작가의 세계관』,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22집, 광운대학교, 1993, 263~276면.
- G. 파스테르나크, 『미메시스 개념과 미적 원리들』, 『문예미학』 제4호, 문예미학회, 1998, 235~264면.
- Th. 테만, 『투카치 후기저술에서 미메시스의 다원론적 존재론』, 『문예미학』 제4호, 문예미학회, 1998, 265~285면.
- Robinson, E. Arthur, “Meredith’s Literary Theory and Science: Realism versus the Comic Spirit”, *PMLA*, Vol. 53, No. 3, 1938, pp.857-868.
- Brown, Marshall, “The Logic of Realism: A Hegelian Approach”, *MLA*, Vol. 96, No. 2, 1981, pp.224-241.

## *Saseol Sijo* and Realism

Ko, Jeong-H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literature awakens and reconstructs the reality of the society through achievements of realism shown by *Saseol Sijo*. In chapter 2, it examines how Lukács' realism theory was incorrectly applied in the studies of *Saseol Sijo* and in chapter 3, achievements of realism that are difficult to be explained by the theory of Lukács are investigated. The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gnoring the fact that 'representation' is considered an aesthetic concept in the Lukács' theory of realism, researchers of *Saseol Sijo* interpreted that *Saseol Sijo* reflects the realities of life as is for a particular class of people. This resulted the criticism that realism negatively judges poetic achievements of *Saseol Sijo*.

Second, the analysis of works of *Saseol Sijo* shows that *Saseol Sijo* does not simply reflect the realities of life for particular class of the society nor just imitate it as is. *Saseol Sijo* aesthetically represents the reality and at the same time, *Saseol Sijo* introduces external things to re-awaken the realities of the society to prevent the represented world from being restored to subjectivity of the mankind. Through this, it showed the achievement of realism in the form where the human controls the subjectivity and applies objective standards on oneself.

Third, because western realism theorists including Lukács were captivated by human-centered perspectives it was difficult to properly explain achievements of realism. For this, new realism theory is necessary which acknowledges that the reality and literature are of different categories, acknowledges that time-space and things inhabited by human may be the variables of more importance in the reality reconstructed by literature and that which considers the liveliness of language that interacts between signs and referents.

Keywords: *Saseol Sijo*, realism, literature, the reality of the society, *Lukács*,  
aesthetic representation, control of subjectivity, achievement of  
realism, things

접수일자: 2013. 8. 31 심사기간: 2013. 8. 31~2013. 11. 20 게재결정: 2013. 11. 20
---